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종신보험 반등 기대

당국,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대상 사망보험금 생전사용 지원 제도 해지율 감소·노후자금 확보 효과 고령 초점, 신규수요 한계 지적도

오랫동안 '죽어서야 쓸 수 있는 보험'이란 인식으로 외면받았던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의 노후생활비나 간병비 확보가 용이해져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가진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형이나 서비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거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대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기존 종신보험이 주택연금처럼 사실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Chat GPT가 생성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이미지.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가 점차 증가해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며 "업계와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침체됐던 종신보험 시장이 이번 기회에 반등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망 시에만 의미가 있던 보험금이 노후 자금이거나 간병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해지를 고민하던 계약자들이 해지 대신 유동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유동화 방안으로 종신보험 가입자의 해지율을 낮추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신보험이 단순히 가족을 위한 사후보장 수단이 아니라 생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령액이나 간병·요양 서비스 이용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타 상품과의 차별성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으로 생명보험 업계에 다시 한 번 활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연금 상품의 경우 사망할 경우 보유했던 적립액만큼 받는데 이번 유동화 방안은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그 차액 만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유동화 방안이 고연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동화 방안 신청 자격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 계약자로 한정돼 새로운 젊은 수요를 확보할만한 동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65세 이상 계약자에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취지의 정책이겠으나 현재 신규 수요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젊은 세대의 경우엔 매력을 느끼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28일까지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금융업, 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비(非)날인본·날인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파일 체크리스트 등 6개다.

이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하기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최대 120일간 심사한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누리 기자 yu1115@

줍줍 막차... 최대 5억 차익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오늘 2가구 무순위 청약 진행 5월 규제강화 앞두고 관심 ↑

아파트 분양시장은 위축됐지만 '줍줍(무순위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수 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고신도시의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이 17일 진행된다. 전용면적 69㎡는 전국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전용 84㎡는 수원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신청 가능해 청약 자격이 일부 제한된다.

분양가는 2021년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전용 69㎡는 7억7430만원, 전용 84㎡는 9억3620만원에 공급된다. 인근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투시도. /현대건설

전용 84㎡는 이달 15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전용 84㎡ 역시 17억~18억원대 시세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의 인기 요인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다. 최초 분양당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시 수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4일 진행된 '복수원자이 렉스비

아' 무순위 청약에는 단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5억9120만원이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어 당첨만 되면 3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파주 '파주온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1가구 모집에는 1만 6128명, 같은 지역 '파주온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에도 1만1156명이 신청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지자체별로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규제 시행 후 신청자가 약 60% 감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

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도 무순위 청약 시장은 활기를 띠겠지만 경쟁률 과열 현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았던 곳이지만 일반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들은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쏟아지는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무순위 청약에서도 수요가 쉽게 불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인기를 끌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나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프로젝트 퍼스트 착수

하나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퍼스트(FIRST)'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하나은행의 1단계 ICT 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O.N.E(Our New Experience)'에 이은 2단계 프로젝트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손님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힘을 합쳐 하나은행만의 손님 중심 DNA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를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 재구축을 포함해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 등 3대 방향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거래 시작부터 상품 추천 및 가입까지 끊임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 경험 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기업뱅킹 및 마케팅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가속에도 집중한다.

민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혁신'도 실시한다. '하나원큐 앱'이 새롭게 구축되며, 손님의 거래 유형을 분류해 손님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를 구현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거래 속도로 비대면 채널이 최적화될 예정이다. /나누리 기자

보험회사 자회사, 요양기관 연계 유통업 영위 허용

금융위, 미래대비과제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비 업무 확대 요양·헬스케어 등 수행 가능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푸드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토탈·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대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해의 진출 실무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해 자회사·부수 업무를 확대한다. 보험회사 자회사는 요양, 건강관리

(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 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시설을 운영하며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에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했다.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해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토탈·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토탈·저해지 연금은 연금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한다. 토탈·저해지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나누리 기자